

오늘 개막 뮤지컬 '캣츠' 100배 즐기기

막간에도 공연은 계속된다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라블'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캣츠'가 7일 드디어 광주에 상륙한다.

'캣츠'는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오는 16일까지 모두 13회 공연된다. '캣츠'는 서울과 대구에서 모두 1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서울 공연은 객석 점유율이 100%에 육박했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관객과의 호흡을 위해 대극장 오케스트라 피트석의 분리벽을 없애고, 무대를 피트석의 3분의 2이상 돌출시켜 거대한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변신시켰다.

몇개월 전부터 티켓을 구입하고 개막을 기다려온 마니아들, 오리지널 뮤지컬을 처음 접하는 기대감에 부푼 사람들 이제 고양이들이 펼쳐는 '젤리롤 축제'에 동참해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캣츠' 100배 즐기는 방법

- ✓ 줄거리·캐릭터 알고 보라
- ✓ 고양이들 움직임에 주목하라
- ✓ 아~ 그 음악 미리 듣고 가자
- ✓ 캐릭터 상품 즐겨온 추억 쌓기

▲ 줄거리와 캐릭터를 인지하라

'캣츠'는 T·S 엘리아트의 '지혜로운 고양이'를 위한 지침서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원작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은 버거운 게 사실. 이럴 땐 캣츠 공식홈페이지(www.musical-cats.co.kr)와 공식 팬카페(cafe.daum.net/MusicalCats)에 둘러보자. 기본적인 시놉시스와 함께 다양한 캐릭터들이 소개돼 있으며 '캣츠 웹진'을 통해 '캣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자막에 너무 신경쓰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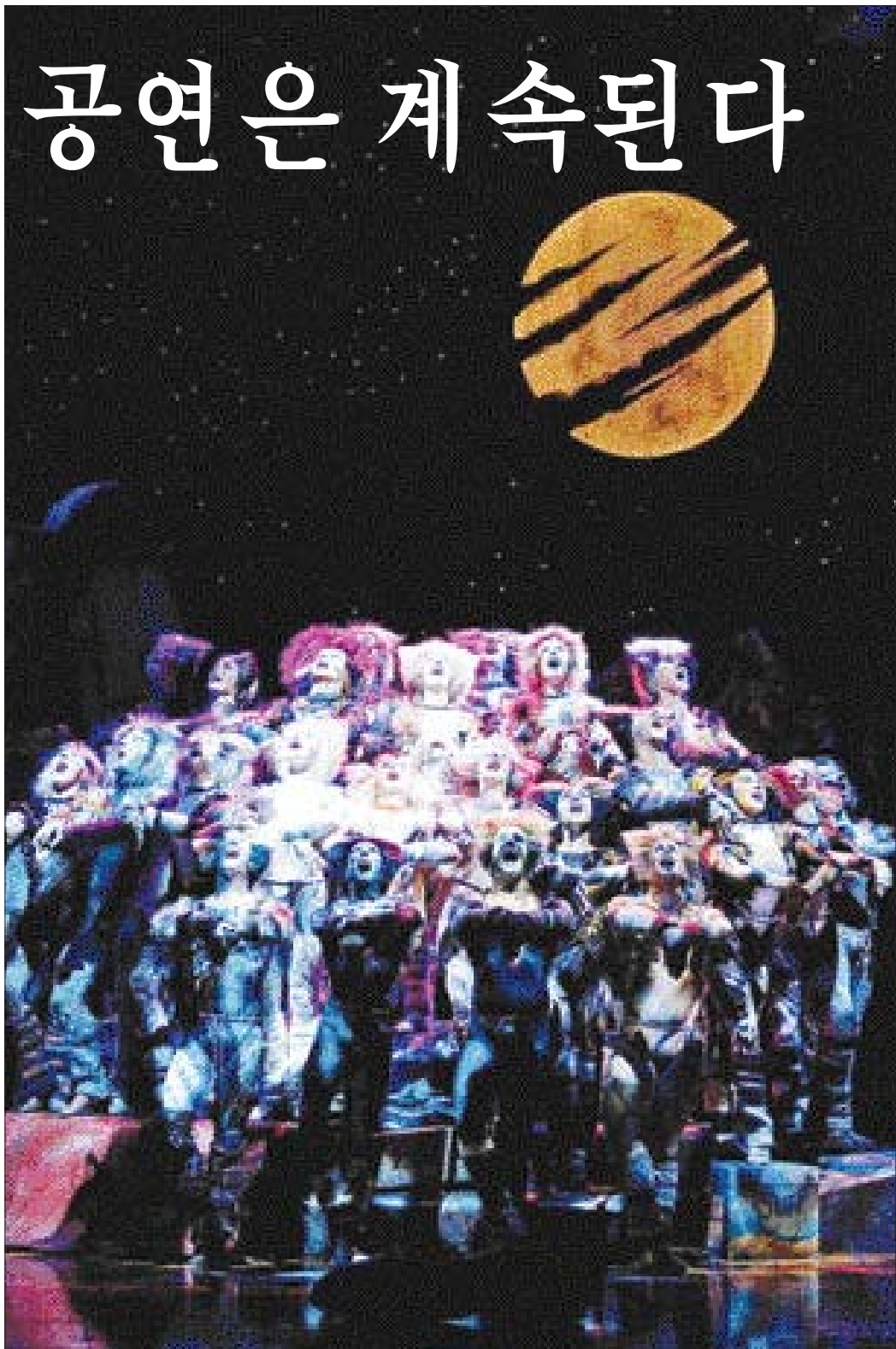
높은 작품 수준을 자랑하는 오리지널 공연팀의 작품을 감상할 때 한가지 아쉬운 건 바로 자막에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이번 공연 역시 무대 양 옆에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하지만 자막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극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캣츠'는 다른 뮤지컬에 비해 일일이 줄거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작품이다. 자막 보는 게 번거롭다면 과감히 자막을 포기하고 춤과 음악, 고양이들의 움직임과 표정에 빠져들어 보자.

▲ 고양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라

바람둥이 '렘 킷 터거', 여주인공 '그리자벨라', 악당 '맥커비티' 등 '캣츠'에는 주역급 캐릭터가 극을 이끌어 나간다. 하지만 배경처럼 움직이는 고양이들 역시 한차례도 가만 있지 않고 끊임 없이 움직이며 '진짜' 고양이처럼 연기한다.

'캣츠'를 140번 넘게 본 캣츠 마니아 박정순씨는 주인공 캐릭터들도 좋지만 새끼 고양이와 조역급



'오페라의 유령' 등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캣츠' 오리지널팀 광주공연이 7일부터 16일까지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출연 고양이들의 화려한 군무,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가 어우러진 고양이들의 축제에 빠져보자.

고양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한다.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쌍둥이 고양이, 텀 텀 터거를 흉모해 그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고양이 등 숨겨진 재미를 찾아보자

▲ 음악을 미리 듣고 가자

'메모리'가 대표곡이긴 하지만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음악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 기회가 닿는다면 미리 앨범을 구입해 음악을 들어보자. 파워풀한 군무 장면에서 등장하는 '젤리롤 축제', 울드 퓨터너미가 부르는 '행복한 순간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즐거움을 두배로 전해준다.

▲ 인터미션 시간도 자리를 지켜라

1막이 끝나면 열린 화장실에 들렀다 자리를 지키

고 앉아 있자. 2부가 시작되기 5분전쯤에 고양이들이 객석을 돌아다닌다.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관객들을 뺨치 쳐다보기도 한다.

운 좋게 통로에 자리를 잡은 관객이라면 고양이 가 당신의 무릎에 앉아 얼굴을 부비찰지도 모른다. 막간에도 무대를 내려가지 않는 울드 퓨터너미에게도 눈길 한번 쬐보는 게 어떨까.

공연장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도착하자. 문예회관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티셔츠, 우산, 머그컵 등 캐릭터 상품과 '캣츠' 공연 실황을 담은 DVD와 CD 등도 구입할 수 있다. 공연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늘의 별이 된 '성악의 제왕' 루치아노 파바로티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쓰리 테너' 공연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사진 왼쪽),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한 루치아노 파바로티.(맨 오른쪽)

신이 내린 목소리 '세기의 테너'

성악 대중화 기여... '전쟁고아' 재단 설립 봉사활동 앞장

6월 세상을 떠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3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과 맑은 음색으로 '황금의 테너', '성악의 제왕'으로 불려온 성악가다.

1935년 10월 12일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제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바로티는 10대 때부터 아마추어 지역 오페라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성악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6살이던 1961년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 보엠'으로 공식 데뷔한 파바로티는 197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도니제티의 '연대의 딸' 공연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으며 인정을 받은 파바로티는 1988년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사랑의 묘약' 공연에서는 박수가 1시간 7분간 쏟아지고 165번의 앙코르를 받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파바로티는 성악의 대중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대중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클래식 연주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1990년 로마 월드컵 개막 기념 공연에서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개최한 '쓰리 테너 콘서트'는 이후 월드컵의 공식 행사로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1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이 열렸으며 1992년, 1993년, 2000년엔 내한 독창회를 갖기도 했다.

파바로티는 또 1994년부터 스타, 에릭 클랩튼, 스티비 워너 등 대중 가수들과 함께 한 '파바로티와 친구

들' 공연과 음반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전쟁고아' 재단에 기부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성악가로서는 승승장구했지만 사생활 면에서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35년간 함께 생활했던 본처와 이혼하고 35년 연하의 개인비서 니콜레타 만토바니와 결혼식을 올린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며 한때 180kg까지 나가는 체중 역시 자기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성악을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도 받았으며 탈세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이탈리아 문화장관은 이탈리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이탈리아 문화 최고 공로상' 수상자로 파바로티를 선정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보라 속 절개의 꽃 매화

한국화가 위진수 15일까지 동림동 우체국

매화를 화폭에 담고 있는 위진수씨가 오는 15일까지 동림동 우체국에서 전시회를 연다.

한국화가인 위씨는 옛 선비들이 문인화에서 즐겨다룬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매화는 쾌락, 행복, 장수, 순리, 절개 등 오덕(五德)을 갖춘 꽃이지만, 작가가 주목하는 덕성은 절개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작가는 유독 눈보라 속에 핀 매화를 즐겨그린다. '향기' 연작은 엄동설한에 꽃을 피운 매화를 옮긴 것이다.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성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의 062-513-643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향기'

**movies**

인기영화 상영 14일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애매1544-0600

1관 마이피더 (15세)	최고급관
2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3관 라파엘트 (15세)/마이피더 (15세)	
4관 스타다스트 (12세)/미스터 브룩스 (18세)	
5관 디스터비아 (12세)	
6관 데쓰 프루프 (18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8관 척 앤 래리 (15세)	
9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합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3관 마이피더 (15세)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5관 디워 (12세)
6관 만남의 광장 (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욕실·욕외 주차장 300대 \*  
\* 낮고 높은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할도시영 영화시영 \*애매:www.joycbo.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앞편)

1관 디워 (12세)
2관 척 앤 래리 (15세)
3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미스터브룩스 (18세)
4관 마이피더 (15세)
5관 샬롯의 두루뎅/사랑의 레시피 (연세)
6관 디스터비아 (12세)/만남의 광장 (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8관 데쓰프루프 (18세)
9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10관 화려한 휴가 (12세)

\*오늘 최대 주차장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1588-7941  
상급원전용 뷔페 (1번 or 2번) ~10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

1관 척 앤 래리 (15세)
2관 만남의 광장 (12세)
3관 사랑의 레시피 (연세)
4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6관 마이 피더 (15세)
7관 디워 (한글자막/12세)/샬롯가족, 더루비 (12세)
8관 데쓰 프루프 (18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석 회원만을 위한 전용영구 비엔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세로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2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3관 화려한 휴가 (12세)
4관 마이 피더 (15세)
5관 미스터브룩스 (18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6관 만남의 광장 (15세)/디워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